

'장수 만남의 광장' 손님맞이 만전 과수 저온 피해 예방 총력

최훈식 군수, 현장 방문 점검 "사람과 사람 잇는 소통·힐링 공간으로 만들 것"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2일 이달 20일에 개장을 앞둔 '장수 만남의 광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세심한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계남면 호덕리 장수 IC 앞, 뿔간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장수 만남의 광장'은 만남을 주제로 주민들은 물론 도시에서의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소통, 힐링의 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부지 내에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휴게형 유리온실 △힐링센터 등이 자리 잡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정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려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유의 장소가 되고자 한다.

특히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단장 송남수)이 운영을 맡아 장수의 상식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 및 베이커리류와 장수사과과리, 장수샐러드, 피자(피자) 등을 주메뉴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장수의 또 다른 명소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용광로에서 흐르는 쇠물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화한 독특한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2일 이달 20일에 개장을 앞둔 '장수 만남의 광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세심한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생김새의 '장수 가야 상징조형물'은 방문객들에게 밝았으로 꺼지지 않는 장수의 열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빈틈없는 '장수 만남의 광장' 개장을 준비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 힐링의 공간이자 장수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가겠다"며 "장수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개발로 새로운 식도락을 선도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0일 '제2회 장안산 불나물 축제'와 함께 '장수 만남의 광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시설·자재 지원 조치요령 등 농가와 공유

지난해 4월 발생했던 이상 저온현상(최저 -3.5℃)에 의해 개화기 꽃눈 피해(1,259농가 926ha)를 크게 입었던 무주군이 반복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작물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4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과수 농가에 방상팬(30농가)을 비롯한 저온 피해 예방제(749농가), 인공수분 자재(150농가) 등을 지원했다.



무주군 과수 저온 피해 예방 활동

또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고 농가 자부담 비용을 지원(사업비 2억 원 투입)해 저온 피해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썩어 트고 꽃이 피는 시기인 4월에는 사과와 복숭아 -1℃이하, 포도는 -0.6℃일 때 저온 피해가 집중 발생을 한다"며 "이는 과실 불량은 물론, 변형과 발생 등을 초래해 품질이 저하되고

진안군, 진안천 준설사업 추진

진안군은 관내 중심지를 흐르는 진안천의 재해예방과 미관개선을 위한 준설사업에 착수했다.

하천준설은 하천의 퇴적토사로 인한 통수단면이 감소하여 하천 유수소통을 방해하고 우기철 집중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진안천의 송대지구(운산리 송대마을)를 시작으로 방재골지구(산안마을)까지 진행되며 진안천 8km에 대해 4월 준설계획을 수립 후 총 1억2천만 원을 투입해 준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자 선착순 모집

무주군이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65명)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만 19세 청년(2005년생)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공연, 전시 등 관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패스를 통해 1인당 15만 원(국비 10만 원은 즉시 지급, 지방비 5만 원은 확보 시점 지급)을 지원한다.

발급 신청은 지정된 티켓판매 협력예매처(인터파크, YES24) 중 1곳에서 신청(본인 인증 후)하면 되며 발급받은 패스(포인트)를 이용해 해당 예매처에서 공연·전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이용 기간 12월 31일까지)로 관람이 가능한 장르는 순수 예술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



라, 발레, 무용, 국악 등) 관람 및 전시로 한정되며, 대중가수 콘서트 및 토크 콘서트, 팬 미팅, 강연, 종교행사, 아동/가족, 행사/축제/페스티벌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진안군, 보험료 95% 지원... 노지사박, 신규 가입 품목 포함

진안군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3월 군은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95%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는 가입비의 5%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감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의 자연

재해와 조수해(집승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보험대상 품목은 벼, 고추, 인삼, 시설작물 등 70여개 품목이며, 진안군은 올해부터 '노지사박'을 신규품목에 포함하여 시설재배 뿐 아니라 노지재배 수박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보험 가입 시기가 품목마다 달라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4월 가입품목은 △노지사박(~5.31.)

△벼(~6.21.) △인삼(~5.24.) △고추(~5.17.) △밭·대추(~5.10.)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 상담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진안군에서 3,605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우박 및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입은 825농가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재해 발생 시 농가의 영농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면서 "재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저출생 극복 임신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은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병동 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입력 검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검사비 지원을 원

하는 부부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다.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한다.

'병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기존에 난자를 병동해 둔 상태에서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사전 신청 절차가 필요 없고 진료를 받은 후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서 및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부부당 1회 100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